



아밀리 모레스모(1위·프랑스)가 4일 미국 뉴욕의 빌리진 킹 내셔널테니스 센터에서 벌어진 US오픈 여자 단식 3회전에서 마라 산탄젤로(37위·이탈리아)를 2-1로 제압한 뒤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 나달·세레나 4회전 진출

#### US오픈 테니스 남녀단식

'테니스 황제' 로저 페더러(세계랭킹 1위·스위스)의 이상에 대항할 호적수 라파엘 나달(2위·스페인)이 총상금 189억원이 걸린 시즌 마지막 메이저대회인 US오픈에서 생애 처음으로 16강이 겨루는 4회전에 진출했다. '흑진주 자매'의 동생 세레나 윌리엄스(91위·미국)도 여자 단식 4회전에 오르며 부활을 알렸다. 나달은 4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의 빌리진 킹 내셔널테니스 센터에서 벌어진 남자 단식 3회전에서 웨슬리 무디(82위·남아프리카공화국)를 3-0(6-4 7-6(7-5) 7-6(7-4))으로 따돌리고 4회전에 올랐다. 2000년 이 대회를 우승했지만 무릎 부상으로 세계랭킹이 104위까지 추락한 마라트

사핀(러시아)은 4위 다비드 날반디안(아르헨티나)을 3-2(6-3 7-5 2-6 3-6 7-6(8-6))로 꺾는 파란을 연출하며 3회전에 합류했다. 이밖에 앤디 로딕(10위·미국), 레이튼 휴이트(17위·호주) 등 강호들도 4회전에 안착했다. 여자부에서는 세레나가 안나 이바노비치(17위·세르비아 몬테네그로)를 2-0으로 완파하고 4회전에 선착했고 올해 호주오픈과 윌블던을 차례로 제패한 아밀리 모레스모(1위·프랑스)도 마라 산탄젤로(37위·이탈리아)를 2-1로 제치고 3회전을 통과했다. 중국의 리나(22위)는 베테랑 마리 피에르스(14위·프랑스)를 2-1로 누르고 이 대회에서 열린 US오픈테니스대회 3회전에서 독일의 베나민 베키(112위)에게 1-3(5-7 7-6(7-4) 4-6 5-7)으로 아깝게 무릎을 꿇고 21년 여정을 마무리했다. /박진표기자 lucky@



애거시 은퇴

처럼치렁한 헤어스타일, 복슬복슬한 가슴털로 못 여성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한 시대를 풍미했던 '섹시 가이' 안드리 애거시(세계랭킹 39위·미국·사진)가 현역 생활을 마감했다. 애거시는 4일(한국시간) 미국 뉴욕 빌리진 킹 내셔널테니스 센터 내 아서 애시 코트에서 열린 US오픈테니스대회 3회전에서 독일의 베나민 베키(112위)에게 1-3(5-7 7-6(7-4) 4-6 5-7)으로 아깝게 무릎을 꿇고 21년 여정을 마무리했다.

## “최소 4골차 이상 이겨라”

### 베어백호, 내일 오후 8시 아시안컵 대만전 이란·시리아와 승점 차이 대승 노려야

#### 이천수 고열·컨디션 난조...엔트리서 제외

지난 2일 이란과 홈 경기에서 막판 집중력 실종으로 패배 만큼 뼈아픈 무승부에 그친 베어백호(號)가 흐트러진 집중력을 가다듬고 약체 대만을 상대로 기록적인 대승을 노린다. 김 베어백 감독이 이끄는 축구 국가대표팀은 3일부터 광주 NFC(대표팀 트레이닝센터)에서 다시 탐금질에 돌입했다. 6일 오후 8시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2007 아시안컵축구 예선 B조 4차전 대만과 홈 경기까지 하루가 남았다. 베어백 감독은 이례적인 '15분 강화'로 선수들의 정신력을 길러줬다. 개인 플레이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현재 B조 판도는 한국이 2승1무(승점 7)로 여전히 조 1위를 지키고 있지만 이란(1승

2무·승점 5), 시리아(1승1무1패·승점 4)의 추격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대만은 3전 전패다. 문제는 골득실이다. 한국은 득점 6, 실점 2로 +4이고 이란도 같은 득실로 +4다. 시리아도 득점 6, 실점 3으로 +3이다. 세 팀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44위 대만을 상대로 한 스코어만 놓고 보면 이란, 시리아가 4골차 승리를 거둔 반면 한국은 지난 달 16일 타이베이 원정에서 미미한 공격력으로 3-0 승리에 그쳤다. 따라서 이번 홈 경기에서 최소한 4골차 이상으로 승리를 거둬야만 한다. 아시아축구연맹의 아시안컵 예선 규정은 각 조 1, 2위 두 팀이 본선에 진출하도록 돼 있는데 승점이 같은 팀들이 나올 경우 해당

팀들 간의 골득실을 먼저 따지고 그 다음 조 전체 골득실로 순위를 가리는 방식이다. 하지만 유럽처럼 원정 다득점 우선 규정은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이 이란 또는 시리아와 승점이 같은 2위가 됐을 경우에는 골득실도 같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 때는 분명히 대만전에서 올린 대량득점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란과 시리아는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서 7일 오전 1시 4차전을 갖는다. 시리아가 이란에 지고 다음 달 11일 한국이 시리아를 홈에서 잡으면 본선행이 확정되지만 시리아가 이란을 눌러 조 판도를 혼전으로 몰고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베어백호의 당면한 '화두'는 집중력이다. 베어백 감독은 대만전에서 이란전과 달리 선발 라인업에 다소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천수(25·울산 현대)가 4일 부상과 고열에다 관도선이 붓는 컨디션 난조로 엔트리에서 제외됨에 따라 설기현과 박지성을 좌우 원포워드에 중용하고 최성국(울산)과 조주국(서울), 김영철(성남) 등 국내파에게도 출전 기회가 돌아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일본, 사우디에 첫 패배...조 2위로 미끄러

#### 아시안컵 축구A조 예선

일본이 2007아시안컵 예선에서 강호 사우디아라비아에 첫 패배를 당했다. 일본은 4일(한국시간) 사우디아라비아의 제다 '프린스 압둘라흐 알 파이살 스타디움'에서 펼쳐진 2007 아시안컵 3차전 원정경기에서 후반 28분 사우디아라비아의 스트라이커 살레흐 바시르에게 결승골을 허용하면서 0-1로 패했다. 이로써 일본은 아시안컵 예선 A조에서 2연승 뒤 첫 패배를 당하면서 3연승(승점9)을 질주한 사우디아라비아(승점9)에 1위 자리를 내줬다.

또 이바차 오심(65) 감독은 일본 사령탑에 취임한 이후 치른 첫 해외원정경기에서 패배의 쓴맛을 봤다. 33도의 높은 기온 속에서 치러진 이날 경기에서 전반을 득점 없이 마친 일본은 후반 28분 페널티지역 안에서 수비수 맞고 흐른 볼을 누야 칸 바시르에게 결승골을 내줬다. 일본은 6일 예선과 2007아시안컵 예선 4차전 경기를 치른다.



북한 여자축구 대표팀이 4일 러시아 모스크바 로코모티브 스타디움에서 열린 20세 이하 세계여자청소년선수권대회 결승에서 중국을 꺾고 우승한 뒤 자국기를 흔들며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 北 여자축구 세계정상 '우뚛'

#### 세계여자청소년축구

북한이 20세 이하 세계여자청소년선수권대회 정상에 올랐다. 북한은 4일(한국시간) 러시아 모스크바 로코모티브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결승에서 헛트릭(3골)을 기록한 김성희의 맹활약을 앞세워 중국을 5-0으로 크게 이기고 우승컵을 안았다. 국제축구연맹(FIFA)이 주최한 국제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남북한을 통틀어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써 북한은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세계여자청소년대회에 처음 참가해 우승까지 차지해 파란을 일으켰다. 북한은 결승까지 6경기를 치르면서 18골

#### 김성희 헛트릭...중국 5대0으로 대파 FIFA 주최 국제대회 우승 남북간 처음

을 넣고 1골만 내줬다. 지난 4월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아시아청소년선수권대회 결승에서 중국에 당한 0-1 패배도 깨끗이 설욕했다. 북한은 전반 29분 조윤미가 페널티지역 내 왼쪽에서 중국 수비수 2명과 혼전 중 선제골을 때내 기선을 제압했다. 이어 김성희가 전반 39분 추가골에 이어 전반 인저티타임 코너킥에서 골키퍼가 처낸 볼을 다시 차넣어 압승을 예고했다. 김성희는 후반 7분 중거리슛이 중국 골키퍼의 손을 맞고 흘러나온 것을 또 한번 골문

안으로 밀어넣어 혼자 3골을 기록했다. 사실상 승부를 결정지은 북한은 후반 11분 김성희가 코너킥을 받아 가볍게 차넣어 해기를 바꿨다. 이번 대회 개인통산 5골 1어시스트를 올린 김성희는 실버슈를 받았으며, 중국 스트라이커 마샤오슈가 5득점 2도움으로 득점상인 골든슈와 최우수선수(MVP)에게 주어지는 골든볼을 받았다. 북한 대표팀은 특히 공정한 경기를 한 팀에게 주어지는 FIFA 페어플레이상도 수상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